



방한 외국인 급증
쇼핑 등 소비 이어져
유통가 함박웃음
L1



Life

인벤티지랩
약물중독 치료제
美 특허 획득
L2



“한국형 모빌리티 G3 핵심 ‘규모·주권·안전’”

기조강연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AI·반도체 등 산업 유기적 연결 강조
“플랫폼·서비스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제조 경쟁력을 넘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표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구도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은 완성차 생산량이나 차량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데이터, 실증 인프라 등 산업 전반의 역량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가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 교수는 한국형 모빌리티 G3 전략의 핵심으로 ‘Scale·Sovereignty·Safety’를 제시했다. 즉 2030년까지 충분한 규모의 상용 플랫폼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기술 주권 및 통제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 수준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AI·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

망했다. 제조 중심의 강점을 서비스와 데이터,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AI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GPU·클라우드 기반 E2E·VLA 교육, 실증 도시를 활용한 리빙랩, SDV·AI 반도체 산학 프로젝트, UAM·스마트시티 기반 3D 모빌리티 프로젝트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하 교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차량 제조 강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AI·소프트웨어와 안전·표준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로봇-물류 결합 흐름… 첨단산업 진입 국면”

기조강연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물류, 기술력 중심 무계이동 진단
“2030년쯤 인간 개입 최소화 될 것”

“2030년쯤이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기계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AI가 물류 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초기 기술들은 이미 물류 운영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며 물류가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물류센터 안에서는 로봇이 상품을 옮기고 자동화 설비가 입출고와 분류를 담당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은 아직 실증 단계지만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관련 기술이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왔



박민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로봇과 물류가 결합하는 흐름을 ‘로지스틱스(Rogistics·Robot+Logistics)’로 표현했다. 박 교수는 “물류가 과거 수송과 보관 등을 사람이 수행하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과 결합한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는 물류센터 운영 방식도 바꾸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자동 입출고 설비 등을 활용하면 기존 1만평 규모의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던 물량을 약 3000평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상품을 찾아 옮기는 작업이 줄어들면서 공

간 활용도를 높이고 인력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류자동화가 확산하는 배경에는빠르게 커지는 물류 수요가 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는 2025년 11조3000억달러(약 1경5500조원)에서 2035년 24조3600억달러(약 3경3600조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확대가 물류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거래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60%에 육박했다. 배송도 대량 운송에서 개별 주문 중심으로 바뀌면서 당일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가 와도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정의돼야 대안을 찾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사는 우리가 AI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상상해야 한다”며 “이러한 집단지성이 물류업계와 대한민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jia_tea@



metro

현장 이모저모



지난 16일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현장에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낙수효과 등 산업현안 화두

건설·상용차 시장 회복 등 전망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한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부터 물류·상용차 시장 전망, 인공지능 전환(AI)까지 다양한 산업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도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온전히 나눠 누리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화두에 올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VIP 티타임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장”이라며 “특히 2차, 3차, 4차 벤더로 내려갈수록 더 종속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옴부즈만은 “대기업이 바빠지면 1차 협력사는 바빠진다”며 “그런데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면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중소 협력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부터 4차, 5차 벤더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며 “대기업은 돈

을 들여 규제에 맞출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소기업은 같은 규제를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져도 2차, 3차, 4차 협력업체는 자동화 투자도 해야 하고 사람도 구해야 하고 환경 규제도 맞춰야 한다”며 “반도체가 뜬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물류업계에서는 AI와 피지컬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론됐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물류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디지털화를 했다”며 “이제는 AI 쪽으로 가야 하고 결국 AI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는 실제 사람과 물건, 로봇이나 설비가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건설·상용차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김병욱 볼보트럭코리아 상무는 “한국 경기가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장이 줄고 있다”면서도 “건설경기는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쯤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택규 한국국제물류협회 상무는 “물류시장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며 “특히 IT와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이승혁기자 sh95@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현장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스쿠벌 상대 2루타 포함 안타 2개… 열흘 만에 멀티히트
▲UFC 최두호, 뒤통에 1R TKO 패배… 8년 만의 랭킹 재진입 무산 /사진 뉴스스

▲알칸타라, 프로야구 키움과 재계약 합의… 23일 팔꿈치 수술
▲‘가을야구 확정’ 애틀랜타, 연이틀 휴스턴 격파…김하성, 2경기 연속 결장

▲‘6호골·13호 도움’ 원맨쇼 펼친 손흥민, 새너제이전 평점 8.3 ‘MVP’
▲‘골잡이’ 이영준, 아시안게임 소집 전 도움…그라스호퍼는 완패